

근대이후 여성 생활한복의 특징 및 변천

김 미 진 · 김 혜 영* · 조 우 현†

인하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석사과정

인하대학교 의류디자인학과 박사과정*

인하대학교 의상디자인과 교수†

Characteristic and Transition of Woman's Saeng-Hwal-Han-Bok after Modern Korea

Mee-Jin Kim · Hye-Young Kim* · Woo-Hyun Cho†

Master's Course, Dept. of Clothing & Textiles, Inha University

Instruct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Inha University*

Prof., Dept. of Fashion Design, Sungkyunkwan University†

(2005. 8. 23. 접수; 9. 6. 채택)

Abstract

Modernization of Korea had begun with the reformation of the Kab-o Reform in 1894, which the government had designed after the protectorate treaty with Japan in 1876. It had affected drastic changes on the formation and framework of a Han-bok by government and the main changes is found in creating new style of Gae-ryang Han-bok. During 1980's, the peoples were interested in traditional cultural heritage, and "the campaign of wearing Woo-Ri Ot" prevailed in Korea to instill the radical sprit of Korean. A Han-bok, which was made at this time, has called a Saeng-hwal Han-bok.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define the the words that are Han-bok, Gae-ryang Han-bok and Saeng-hwal Han-bok of meaning and characteristic based on the previous studies and historical materials and present a unified and historical opinion about Han-bok to the academic world and industry of Han-bok by the consideration.

Han-bok is a traditional costume with a long skirt and long breast-tie based on the later Cho-sun and is emphasized a virtue and manner on it. **Gae-ryang Han-bok** is an improved Han-bok that is include with a Tong-Chima and Jeogori for making a movement and function better. **Saeng-hwal Han-bok** is originated by the movement of wearing Woo-ri Ot in 1984, is interpreted the traditional Korean beauty from the modern view and is a practice Han-bok for popularizing intodaily life.

After investigating the 33 of previous studies, the characteristics and transitions of Han-bok are followed. **First**, the reason of fail about the reform of dress is a loss of traditional beauty. **Second**, the yes or no of the establishment of law about the reform of dress, it influenced ona reforming or wearing speed of costume. **Third**, after 8.15, a modern girl and girl student can not impact on a system of Korean women anymore because, the number of the group that means a high educated and active woman, was growing. So, the elevation of women's education matured the system of Korean women's costume. **Forth**, western style clothes are popularized after the Korean War and it is set down in the system of Korean women's dress.

Key Words: Han-bok(한복), Gae-ryang Han-bok(개량한복), Saeng-hwal Han-bok(생활한복)

I. 서론

한국은 1876년 미국과 丙子修護條約을 체결하면서 근대화된 서구 문물들을 직·간접적으로 접하게 되었고 영향을 받았으며, 1894년 갑오경장을 기점으로 자주적인 근대화를 위한 물고를 뜨게 되었다. 이 때 이후로 급격한 사회변혁과 외세의 영향 속에서 한복은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여 복장 개량이 시도되고 변화를 하여 '개량한복'이 등장하였다. 따라서 본래 여성들이 착용하고 있었던 긴치마 저고리의 형의 한복과 개량한복이 당시 복식제도의 이중구조를 이루었다. 현재 한국의 복식체계는 일상복으로 서양복을 착용되고 있으며 한복은 예절의 기능이 강화되고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강조된 전통형의 한복과 일상복으로 기능성을 향상시키고 현대화하여 재창조된 전통미를 구현한 생활 한복으로 발전되어 서양복과 한복의 이중구조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생활한복은 1960년대 까지 한복의 개량과 서구화를 지향한 개량한복과는 다른 개념이나 전통형의 한복에서 기능성과 실용성, 활동성을 고려하여 현대적으로 재구성했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 생활한복의 형이 개량한복의 모습과 흡사한데서 용어의 구분이 모호하여 사용이 혼재되고 있으며, 개념이 불명료하다. 학계에서도 개량한복과 생활한복의 출현 시점과 적용범위, 복식으로서의 특성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통일된 견해를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복식개념의 모호함은 오늘날 생활한복업계의 도태를 초래하고 사람들에게 일상복으로서 착용하는 것에 대해 의면받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한복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변천 검토와 통일된 개념정립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전통한복, 전통 복식, 한복, 궁중복식, 궁중 예복 등으로 명칭 되고 있는 전통형의 복식을 한복이라 하며 조선 후기의 한복형태를 기초로 하여 1910년대 한복의 개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개량한복과 한복으로 구분되기 시작

하여 1953년 전후 양장의 급격한 보급과 개량한복의 착용 범위가 점점 축소되고 예복의 기능이 강화되어 주체성이 확립되어 오늘날 예복으로서 흔히 볼 수 있는 긴치마 저고리 형을 말한다.

1910년대에 전도부인과 신여성, 여학생들을 중심으로 한복의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 활동성과 기능성을 고려한 통치마저고리형의 한복을 개량한복이라 정의 한다. 생활한복은 1984년 대학가를 중심으로 전통 문화 보급을 위해 전개된 '우리 옷 입기 운동'에서 출발하여 민중문화의 이념을 내용적인 미로 하여 한복의 전통적인 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한복착용을 대중화하기 위한 실용적인 옷을 말한다. 현재 생활한복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다르게 명칭 되어 혼용되는 개량한복, 생활복, 실용한복, 우리 옷, 평상복, 현대적 한복, 현대한복, 변형한복, 우리 옷, 겨레 옷 등을 통칭하는 용어로 정의 한다.

복식은 문화의 한 요소로서 한 사회의 문화를 반영하고 어느 특정한 사회나 집단의 문화는 복식과 인간의 복식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문화적 현상은 복식에 반영하게 되므로¹⁾ 위와 같은 복식용어의 정의와 그 특성을 논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과 자료를 사용하였다.

연구 자료는 근대이후 한복의 변천과 생활한복에 대한 33편의 선행연구논문과 신문, 잡지자료 등의 문헌자료를 기초로 하였다. 연구방법으로 문헌자료를 분석하고, 한복변천의 역사적인 사건과 사실을 기록하고 체계화하여 각 용어의 사적인 정당성을 논증한다. 또한,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하여 근대이후 한국 여성 복식의 변천원리를 밝힌다. 조사 연대의 범위는 19세기 후반부터 현재로 한다.

학문의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용어의 정의와 개념의 명료화는 그 학문의 앞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주춧돌을 놓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복, 개량한복, 생활한복의 명확한 용어 정립은 복식 개체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앞으로 한복업계가 현재의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 속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모토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¹Corresponding author ; Woo-Hyun Cho
Tel. +82-16-326-1520, Fax. +82-2-760-0514
E-mail : joy54@hanmail.net

II. 한복, 개량한복, 생활한복의 정의와 특성

19세기 후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복의 변천과 그 특성을 문헌자료에 기초하여 살펴보았다. 한국의 복식은 韓服이라는 큰 줄기가 반만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변화·발전하여 오늘날과 같이 남자의 경우 바지저고리, 여자의 경우는 치마저고리의 형이 자리 잡힌 것은 조선시대이다. 특히, 소위 전통한복이라 지칭되는 저고리와 둥근 배래, 긴 고름, 긴 치마의 구성이 정착된 것은 조선후기이다.

1910년대에 신여성과 여학생, 전도부인에 의해 본격적인 한복개량이 시작되어 한국여성의 복식은 한복과 개량한복의 이중구조로 이루어지게 되고, 1953년 6.25전쟁이후 구호물자와 밀수품, 미군에서 흘러나오는 의복의 영향으로 양장을 착용하는 여성이 급증하여 긴 치마, 저고리는 예복의 기능이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개량한복은 1963년까지 활발하게 제시, 제안되었으나 지나친 서구화와 서구식 구성방법의 도입으로 우리의 고유미를 잃어버렸다는 비판을 받아 그 성장의 속도가 느려졌으며 그 이후 개량한복보다 전통적인 한복이 장식성이 강화되어 화려해진 형태로 발전되었다.

생활한복은 1980년대 급속한 경제발전과 산업화, 물질문명의 만연, 대중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서구식 문화가 우리의 일상 속에 아무런 비판 없이 수용되고 범람하는 데에 자성의 목소리에서 우리 전통 문화를 보급하는데 일환으로 대학가에서 ‘우리 옷 입기’ 운동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생활한복은 이전 개량한복과는 달리 한복을 현대화 하면서도 전통의 미를 살리고 한복을 일상 속에서 착용하기 위해 기능성과 심미성, 전통성을 고려한 한복이다. 한복, 개량한복, 생활한복의 세부적인 개념과 특성은 아래와 같다.

1. 한 복

한복은 현재 많은 사람들이 지칭하는 ‘전통한복’을 대변하는 말이며 앞으로 지향해야 할 용어라고 생각된다. ‘전통’이란 개념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전해져 내려오는 계통”으로 전승된 문화 요소를 말한다. 전통은 ‘문화, 문명 또는 사회 집단에 연속성을 부여하는 관습, 믿음, 행위의 집합체로서

고유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이다. 또한 계승된 문화의 원형이라기 보단 그것에 대한 가치판단을 표현하는 사고로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창조되며,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통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은 가변적이고 다변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2. 전통은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공감대를 느끼게 하는 가치관의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3. 전통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묶어 줄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
4. 전통은 관습이나 민속의 재현이라는 논리와 달리 재평가와 재창조의 의미를 담고 있다.²⁾

따라서 전통의 개념은 시대마다 상대적이고 가변적이므로 현재 흔히 사용되고 있는 전통한복의 개념은 그 범위가 크고 명료하지 않다. ‘한복’이란 용어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한국인의 옷’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한복하면 치마저고리, 바지저고리를 연상시킬 수 있는 기표이므로 ‘전통한복’보다는 ‘한복’이란 용어를 사용할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복은 긴치마와 긴 고름을 가진 저고리의 형을 말하며 이 한복의 구체적인 형의 확립은 조선후기의 복식을 기초로 하고, 1910년대 한복개량을 통하여 개량한복과 이중구조를 형성하고 있던 치마저고리에서부터 다른 한복 용어와 구분이 시작된다. 1953년 6.25전쟁이후 많은 사람들이 일상복으로 양장을 착용하고, 한복은 외출복이나 명절 때를 위해 예복의 성격이 강해지기 시작하여 한복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다. 따라서 오늘날의 한복은 예복의 성격이 강화된 조선후기 때를 기초로 한 긴 치마와 긴 고름을 가진 저고리로 구성된 복식을 말하며 다른 의복과의 구분과 그 특성의 조성은 1910년대 개량한복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2. 개량한복

개량한복은 1910년대부터 한복의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도부인과 여학생, 신여성들이

주도로 하여 기능성과 활동성을 고려하여 만든 통치마·저고리를 말한다. 통치마는 기존의 착용하고 있던 한복보다 활동성을 고려하여 길이를 짧게 하였고 1911년 이화학당의 Miss Walter와 Miss Pye의 제안에 의해 치마에 어깨허리를 달아 그동안 가슴을 꿍꿍 동여매어 고정하였던 압박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치마의 길이는 발목위에서부터 시대에 따라 다양하며 저고리도 활동성을 고려하여 길이를 길게 하고 품과 진동을 넉넉하게 하여 여성의 신체를 자유롭게 하였다. 개량한복은 사회활동을 하는 전도부인이나 신여성, 여학생이 먼저 착용하고 불편한 점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였는데, 착용자의 당시 사회적인 위치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개량한복은 현재까지 본원적인 이미지나 속성이 사회적인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개량'한다는 단어의 어감이 나쁜 점을 개선한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오늘날에는 지양되고 있다. 개량한복은 6.25전쟁이 끝나고 구호물자와 구제품, 밀수된 의류들이 범람하여 양장이 많이 착용되기 시작할 때도 일상적으로 많이 착용되었으며, 마지막으로 범국민적인 한복개량운동이 전개된 것은 1961년 '신생활 재건운동'에서 제안한 개량한복형의 신생활복의 장려이다. 그러나 1963년 한·일 친선 패션쇼에서도 블레로식의 개량복 외에 아리랑 드레스 등 다양한 개량한복이 선보였으

며 1970년대에도 오히려 일상복으로 개량한복의 착용이 증가하였다는 연구가 있다. 따라서 개량한복은 191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1960년대까지 일반적으로 착용되었다가 1970년대에 가서 점차 착용범위가 축소되어³⁾ 오늘날에는 거의 사라진 복식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개량한복은 1980년대 나타난 생활한복보다 그 이미지가 사회적으로 더 우위에 있어 언제라도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오늘날 개량한복이 부활한다면 전통형의 한복과 생활한복의 차이 줄일 수 있는 중간역할을 하는 매개체 역할을 기대할 수 있리라 생각한다.

3. 생활한복

생활한복은 1984년 우리 전통 문화의 보급화 민족 정체성의 확립을 위하여 대학가에서부터 '우리 옷 입기' 운동을 통하여 생활한복 전문 업체, 한복 업체, 전문디자이너들이 한복의 전통적인 미를 현대적으로 구현하고 실용성과 편의성을 높여 일상복으로 착용하는 것을 위한 옷이며 현재 생활한복과 유사한 의미로 통용되고 있는 개량한복, 생활복, 실용한복, 우리 옷, 평상복, 현대적 한복, 현대한복, 변형한복 우리 옷, 겨레 옷을 통합하여 명칭한다. 과거 생활한복을 '민중한복'이라고도 하여 그 이념성이 강조되고 현재에도 생활한복의 내용

〈표1〉 한복용어의 정의 및 특성

	한복	개량한복	생활한복
정의	조선후기에 기반을 둔 긴치마저고리형의 고름이 달린 예복의 기능이 강화된 전통형 복식	한복의 불편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능성과 활동성을 고려하여 통치마·저고리형의 복식	한복의 전통적인 미를 현대적으로 구현하고 실용성과 편의성을 높여 일상복으로 착용하기 위한 복식
형성시기	1910년대	1910년대	1984년
특성	1953년 6.25전쟁직후 복식으로서의 주체성이 확립	당시 사회활동을 많이 한 전도부인과 고등교육을 받은 신여성, 여학생의 주도로 복식개량이 이루어졌으며 일제의 의도적인 복식개량의 영향을 받음. 1961년까지 한복개량운동이 계속되었다가 지나친 서구화로 전통미와 고유미를 잃었다는 비난 속에 점차 착용 기회가 축소되어 현재는 사라진 의복개념.	근대화 과정에서 역사적인 시련을 겪었던 민중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여 남과 북의 공통된 전통문화를 회복하고자 한 것으로 이러한 이념적인 특성은 생활한복의 내용적인 미로 남아 현재까지 작용.
유사어	전통복식, 전통한복, 전통 한국 민속복식	간이복, 간단복, 신 생활복, 국민 생활복, 새 생활복, 국민복, 표준 간소복	개량한복, 생활복, 실용한복, 우리 옷, 평상복, 현대적 한복, 현대한복, 변형한복 우리 옷, 겨레 옷

적인 미로 남게 되었다. 한복을 현대화한다는 것은 60년대 개량한복처럼 서구화를 지향한다는 것이 아니고, 전통적인 선과 형을 유지하면서 그 이미지와 색채를 현실감각에 맞게 녹여내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형태적인 특징은 여밈의 형태가 간소화되었고 다양한 것이 활용되었으며, 곡선이 직선화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⁴⁾ 또, 서양식의 구성을 활용하여 몸의 맞음새를 개선하였으나 전통적인 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였으며 천연염색과 천연직물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여러 가공을 사용하여 소재의 혁신을 이루어 냈다. 또한 조선후기를 기본으로 한 현재의 한복 형에서 벗어나 삼국시대, 고려, 조선 초기, 중기 등 다양한 시대의 복식을 활용하여 디자인의 참신함과 다양함을 이루었다.

Ⅲ. 선행연구에 나타난 시대별 한복의 변천과 특성

근대 이후 한복의 변천과 생활 한복에 대한 선행연구 33편을 조사한 결과 19세기 후반이후부터 사회의 변화와 한복의 개량과 변화양상에 따라 5개의 범위로 시대를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본격적인 한국의 근대화를 1894년 갑오경장을 기준으로 하여 한복변천의 시대구분을

- 1) 한복 개량의 맹아기(1894년 이전 ~ 1904년)
- 2) 통치마저고리와 백의 금지의 시대(1905년 ~ 1945년 해방이전)
- ① 통치마저고리의 등장과 장옷폐지 (1905년 ~ 1919년 3.1 운동이전)
- ② 복식의 이중구조와 백의 금지 (1919년 3.1 운동 이후부터 ~ 1936년)
- 3) 물자절약 위한 한복개량과 양장의 보급 (1937년 ~ 1953년 6.25직후까지)
- 4) 개량한복의 쇠퇴와 예복기능 강화(1953년 ~ 1979년)
- 5) 생활한복의 등장과 세계화 (1980년 ~)

로 하였으며 각 시대에 따른 복식 변화와 그 요인은 아래와 같다.

1. 한복 개량의 맹아기(1894년 이전~1904년)

복식 개량에 관한 논의는 사실 조선 초기와 중기에서도 있었다. 이 때, 여복 개량에 관한 논의는 고대 중국복식제도를 이상적인 여성복식으로 보고 중국 고대 부녀복식에서 개량 안을 모색하였기 때문에 당시 현실과 풍습에 맞지 않아 한계가 있었다. 또, 사회질서 유지와 사회 조직 내에서 신분과 지위, 계급과 품계의 표시수단으로 통치자에게는 통치수단으로 사용되었다.⁵⁾

조선 후기 중국을 통한 천주교, 외국 서적, 문물의 유입, 선교사들의 직접적인 포교활동은 일부 계층이긴 하지만 조선 사람들에게 접해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에 호기심을 유발하였으며 그들의 평등



〈그림1〉 사진으로 본 조선시대 민족의 사진첩1, p.178



〈그림2〉 사진으로 본 조선시대 민족의 사진첩1, p.180



〈그림3〉 거리 선교하는 남자 선교사, 사진으로 본 조선시대 민족의 사진첩1, p.183



〈그림4〉 사진으로 본 조선시대 민족의 사진첩1, p.184



〈그림5〉 여선교사의 복장, 1900년,
사진으로 본 조선시대 민족의 사진첩1, p.170



〈그림6〉 1905년의 여선교사와 수녀,
사진으로 본 조선시대 민족의 사진첩1, p.181

하고 실용적인 학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또한 서구 열강들이 영토확장과 경제적인 이득의 목적으로 무력을 앞세우고 식민지 개척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동양의 많은 나라들이 이들에게 개항하였으며 조선은 1876년 미국과 丙子修護條約을 맺으면서 서구문명과 직접, 간접적으로 접촉하기 시작하였다.⁶⁾ 내부적으로는 동학사상의 영향으로 시민들의 개화의식을 맹아 시켰는데, 이 사상은 남녀평등과 여성존중을 강조했다. 1883년 친미사절단이 미국, 구라파를 돌아보고 올 때, 양복 한 벌씩을 사가지고 왔는데 이들은 황제에게 복제개혁을 건의했고 그 이듬해인 1884년에 甲申衣制改革이 단행되었다. 이 衣制改革은 수구파의 반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가 개혁파와의 의견을 종합한 중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衣制의 간소화를 꾀하였다. 그러나 이 개혁에 대한 반대 상소가 끊이지 않아 잘 시행되지 않았다.

1886년에는 이화학당이 창립되었는데 당시 아

라사제 붉은 목면 옷감으로 만든 치마, 저고리를 교복으로 하였다. 上下同색의 한복은 한국 전통복식의 배색에서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선교사들의 원피스에서 착안된 것으로 생각되고 후에 상하동색의 한복배색의 효시가 되었다.⁷⁾

1888년, 조선정부는 최초의 美國公使로 박정양과 그 일행 10명을 미국에 파견하였는데 이들의 전통 복장이 워싱턴에서 화제가 되었고 이때 이후로 외교관들은 양복을 혼용하였다.⁸⁾ 또한, 이들 외교관들은 발령지로 부임할 때 부인을 대동하였는데, 후에 이 부인들이 조선에서 여성양장착용의 효시가 되고 적극적인 여성단체 활동을 통하여 복식개량에 앞장서게 된다.

1887년에 강화도 금화에 사는 김용원이 일본에서 재봉틀을 처음으로 국내에 들여왔다. 이것을 계기로 재봉틀은 집집마다 필수품이 되었으며 옷을 짓는 속도를 빠르게 하였다.⁹⁾

1894년 갑오경장으로 공식적으로 관복이 간소화되었으며, 이를 기점으로 하여 전도부인과 여학생을 중심으로 복식 개량에 대한 논의가 되기 시작하였다. 전도부인은 서양복식의 간편성을 본떠서 매우 짧았던 저고리 길이를 조금씩 길게 하고 치마의 길이를 짧게 만들어 활동성 있게 하였다. 또한, 결마기와 끝동을 제거한 순색의 저고리는 당시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때이지만 전도부인들은 과감히 순색바탕의 기존의 것보다 길어진 저고리에 짧은 치마를 착용하였다.

이듬해인 1895년에는 단발령이 내려졌는데 이때, 공식적으로 양복의 착용이 허용되고 군복이 양장화 되었다. 1899년에는 외교관의 복장을 양복화하였으며, 이듬해인 1900년 4월 17일에는 칙령 14



〈그림7〉 1900년대 짧은 저고리, 치마의 한복,
사진으로 본 조선시대 민족의 사진첩2, p.12



〈그림8〉 순색저고리, 치마의 한복, 1900년, 사진으로 본 조선시대 민족의 사진첩3, p.11

호로 문관복장 규칙을 정하고 제 15호로 문관대례 복제식을 정했으며 제 13호로 훈장규칙을 정하여 양복을 착용하도록 정하였다. 이것은 신라 28대 진덕 여왕 이래 조선 509년까지 착용해온 중국식 관복이 구미식 관복으로 변화된 획기적인 사건이며,¹⁰⁾ 관복의 양복화가 법으로 제정됨에 있어서 남성의 복식이 한복에서 양장으로의 변화가 그렇지 않았던 여성복의 변화보다 매우 빠르게 전환되었다. 1898년 찬양회에서 장옷폐지에 대한 상소를 정부에 제출했으나 여자 의복의 개량은 급선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인허를 받지 못하였다.¹¹⁾



〈그림9〉 이화학당에 입학하는 여학생들, 1900년, 사진으로 본 조선시대 민족의 사진첩1, p.125

1886년 1명의 학생으로 개교한 이화학당은 그 뒤 꾸준하게 학생수가 늘어 많아지자 1902년부터 학생 스스로 의복을 마련하게 하였는데 이때부터 옥색치마에 흰 저고리가 교복화 되었다. 당시 여학생의 머리는 땅아 자주나 다홍뎡기를 드리고 신발은 짚신, 미투리를 신었는데 비가 오면 나막신을 신었다.¹²⁾

이와 같이 19세기 후반부터 천주교의 유입과 동학사상의 영향을 받은 조선 사람들은 근대적인 개

화의식을 자각하고 내부로부터 개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1894년 갑오개혁으로 관복과 의제의 간소화를 이룩하고 1895년 단발령으로 양장의 착용을 허용하였으며 1900년에는 공식적으로 관복을 양장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하였다. 이와 같이 남성의 복식은 관복이 양복화 되는 것이 법으로 제정되어 한복에서 양장으로의 전환이 빨라졌다. 여성의 복식도 갑오개혁이 이후로 서구문물과 접촉을 자주 할 수 있었던 전도부인과 고등교육을 받은 여학생을 중심으로 복장개량이 논의되었고 전도부인은 활동성과 기능성을 고려하여 저고리의 길이를 길게 하고 치마를 짧게 고쳐 입었다. 이것은 이미 당시의 여성들이 19세기 후반의 여자복식이 기능성이나 활동성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으며 개량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여 자발적으로 복식개량을 주도하였고 복식을 개량하는데 있어서 모델이 선교사들의 기능적인 복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통치마저고리와 백의 금지의 시대(1905 ~ 1945년 해방이전)

1) 통치마저고리의 등장과 장옷폐지 (1905년 ~ 1919년 3.1 운동이전)

1905년 이후 한복의 형태개량이 개화파인사들에 의해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하였다.¹³⁾ 이 때 한복의 개량을 위해 주로 논의 되었던 것은 장옷폐지와 치마의 길이를 짧게 하는데 있었다. 1907년 제국신문에 실린 기사를 보면 “부인의 의복을 개량한 일”과 “전통적인 치마저고리를 바탕으로 하고 거기에다 양복의 이점을 살리는 개량복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즉, 저고리나 적심의 앞뒤는 섶을 조금 길게 하여 구수와 도련에 선 등을 두르고 치마도 통치마로 변형할 것.”을 제의 하였다. 또 한복의 변형을 장려한 기사로 같은 날 논설에도 “치마는 도랑치마로 하되 외로 넓고 바로 입는 폐단이 업시 통치마로 둘러서 거름 거리를 때에 치맛자락이 버러지지 안게 하고...” 하여 짧은 통치마를 입자는 주장이 실렸다.¹⁴⁾

장옷폐지는 내외법 폐지와 관련되어 있으며 여학교에서 쓰개치마의 착용을 금지시키고 양산이나 우산을 들고 다니게 하여 이것이 일반 여성에게 전해

저¹⁵⁾ 유행되었고, 내의 법의 개혁 및 철폐 요구는 결국 장의 착용 지양과 의제개량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¹⁶⁾

여학교에서의 쓰개치마 금지는 1908년 貞信학교와 한성여학교에서 시작하여 1911년 梨花學堂, 培花학교,¹⁷⁾ 崇義 여학교가 금지하였고 1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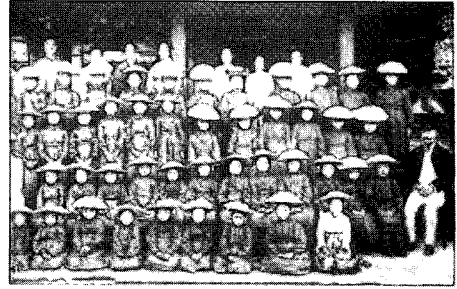


〈그림10〉 장옷차림의 개혁기 여인, 사진으로 보는 조선 백년, 동아일보사, p.744.

년대 말에는 거의 모든 여학교가 금지 하였다. 그러나 학부모의 거센 항의로 학교에서는 쓰개치마 대신 양산이나 (검정색)우산으로 쓰개치마를 대신 하였는데 우산의 사용은 쓰개치마폐지를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¹⁸⁾

1906년 11월 萬歲報에는 衣制改正法制定論을 제시하는 논설이 실렸는데, 이 개정론에는 장의 착용 폐지를 위해 帽子着用論을 제시하였다. 帽子着用論은 장의 지양의 최선의 방법으로 받아들여져 1906년 7월에 女帽製造會社를 설립코자 농상공부에 청원하여 인가를 받았으나 모자보급은 용이하지 않았다.

여학교의 교복은 1886년 이화학당의 자주색 상하동색의 한복교복 제정 이후로 대부분 한복교복을 채택하고 있었다. 그러나 1907년 숙명여학교는 최초로 자주색 양장교복을 채택하였는데 이 시기의 양장 교복은 당시의 재래식 한복에 변화를 가져오고, 양장의 형태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 양장교복은 1910년 자주색 한복으로 바뀌었다.¹⁹⁾ 1908년 이화학당의 메이데이 행사 때에는 배꽃이 색인 흰색의 한복을 입게 하였고, 정신여학교가 흰 저고리에 검정치마를 교복으로²⁰⁾ 1910년 한성여학교는 흰 저고리에 검은 통치마로 교복을 제정하였다.²¹⁾ 1911년 이화학당의 교사 Miss Walter와 Miss Pye에 의해 한복치마의 어깨허리 패턴이 고안되었고 이것을 학생들이 방학 때 고향으로 내려가 보급시켜 전국적으로 의복을 편리하게 개량이 되도록 하였다. 어깨허리 패턴은 한복치마뿐만 아니라 속치마, 바지에까지 적용이 되었다.²²⁾



〈그림11〉 1907년 숙명여학교의 양장교복, 사진으로 본 조선시대 민족의 사진첩1, p.147



〈그림12〉 1915년 이화학당의 교복, 사진으로 본 조선시대 민족의 사진첩1, p.147

또한, 각종 여성단체들이 조직되고 활발하게 활동하였는데 1906년, 이옥향을 대표로 한 친 일계 고관부인 주동의 여자교육회가 조직되었다. 이 단체는 특히 여성들의 의복개량에 힘썼는데²³⁾ 1907년 중추원에 여자의제 개량을 거의 하였으나 부결되었고 그 이듬해에 女性禮服擬正會에서 여성의 양장 예복에 대한 공모를 하고, 선정된 안을 실물 제작하여 중추원에 송부하였는데 이것을 여성 양장이 법으로 제정된 후 전국적으로 착용시키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인민자유에 맡기기로 한 중추원의 대답으로 정부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공식복 이외의 복장 개정은 정부에서 관여하지 않고 일반 국민에게 위임한다.’는 정부의 반응은 여성복은 공식복이 아니고 따라서 여성 양장이 정부 당국과 무관함을 나타내는 것이다.²⁵⁾

2) 복식의 이중구조와 백의 금지 (1919년 3.1 운동 이후부터 ~ 1936년)

1919년 3.1운동은 우리민족의 민족정신을 고취

시켜 개항이후로 서서히 보급되었던 여성양장의 증가가 완전히 정지상태가 되고 한복을 다시 착용하게 되었다.²⁶⁾ 이에 일제는 강압적인 지배체제에서 문화정치로 통감부의 통치방향이 전환하고 여성해방론적인 측면에서 ‘관’의 강압적인 지도아래 ‘복색’에 초점을 둔 복식개량을 진행하였다.²⁷⁾ 일제의 복색개량은 색복을 장려하면서 백의를 금지하는 것이었는데 사실상 통감부 정치가 시작된 1905년부터 시작되었다. 1922년 金瑞圭가 지사회의(총독부 주최)에 건의한 이후 색복장려운동은 정부 당국의 주도에 의해 강력하게 전개되었다. 진한색 또는 검정색의 옷을 착용하도록 권하는 색복장려운동은 각 군 단위를 주도하여 지역에 따라서는 검정과 회색이외에 청, 천, 수색 등을 장려하기도 하였다. 특히 여학생의 복색은 기생의 복장과 구별하기 위해 검정색으로 제정되어 이 시기를 대표하는 색이 되었다.

또한 여성 단체들의 사회운동은 개화기 이래 구국을 지향하였으나 3.1운동이 실패로 돌아가자 교육운동과 노동운동으로 전환하였다. 따라서 이런 여성단체들의 자각적인 신문화 전개 운동으로 신여성이란 말이 1923년 잡지에 처음 사용되었고 그 이후부터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보편적으로 일반여성들은 쓰개치마를 사용하였고 소색이나 흰색의 개량되지 않은 전통 한복을 입고 있었다. 이에, 사회의 여러 지도적인 사람들의 의복개량을 주장하며 신문에 논설을 실었는데 1921년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김원주가 개량복을 제안하였다. 그는 의복이 갖추어야 할 3대 조건을 위생, 예의, 기능을 들고 한국여성의 의복을 위생과 간편을 위주로 개량해야한다는 진보적인 주장 아래 양장의 요소를 많이 도입한 개량 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에 나혜석이 김원주의 개량 안은 한복의 본질적 특징이 사라질 정도로 양장의 요소가 강하다는 점을 비판하고 어깨하리를 단 통치마, 저고리를 위생과 예의의 미, 그리고 활동성을 겸비한 이상적인 의복으로 평가,²⁷⁾ 반박한 것이 흥미롭다.

여학생의 교복은 1920년대를 전후로 흰 저고리, 검정 통치마로 통일된 형태였는데, 각 학교마다 치마의 재질이나 색을 검색이나 자주, 검정 등으로 조금씩 다르게 하고 그 끝에 선을 달아 특색을 나타내었다. 여학생과 신여성의 치마의 길이는 처음

발목을 노출시키던 것이 점점 짧아졌다. 반면 일반여성들은 짧은 저고리에 긴 치마인 전통형의 한복을 주로 입었으나, 긴 저고리를 착용하기도 하여 1920년대의 여성한복은 긴 저고리와 짧은 저고리, 긴치마와 짧은 치마의 이중구조를 보인다.²⁸⁾



〈그림13〉 달걀배금을 받는 여인들, 1932년, 사진으로 보는 조선 백년, 동아일보사, p.575



〈그림14〉 미술전람회를 구경하는 여학생들, 1915년경, 사진으로 본 조선시대 민족의 사진첩1, p.142

1930년대에 이르러서는 染色衣宣傳歌를 제정, 부르게 하고 染色衣宣傳標語의 모집과 함께 배리를 뿌리기도 하였다. 또한 백의 착용자는 버스의 착용을 금지시키거나 관공서 출입을 제한하고 물총에 검은 물감을 넣어 쏘기도 하여 강제성을 띠고 있었다.²⁹⁾

또한, 1919년 3.1운동 이후로 조선인의 한복착용이 높아지자 일제에 의한 적극적인 양장의 착용을 권장하여 여학생, 사무원, 여교사 등 평범한 일반 대중 여성에게 확대되었는데 당시 양장은 간편하고 기능적인 스타일이었다. 이는 20년대 중반 서구의 보이쉬 스타일과 의복을 간소화 시키고자하는 흐름과 같이하여 여성 양장의 스커트와 한복의 통치마의 길이가 짧아지고 개량한복인 흰 저고리, 통치마의 착용인구가 증가하였다.³⁰⁾ 이러한 추세 속에서 1934년 국내 최초의 여의 감상회가 개최되어 양장착용을 촉진시키는 하나의 자극제가 되었다.³¹⁾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직까지 한국어성의 의복으로 양장보다는 전통적인 긴치마 형태를 선호하였다. 따라서 무비판적인 양장착용보다는 자신에게 맞도록 입고 그렇지 않으면 한복을 입을 것을 권하였다. 또한 1936년 한국을 방문했던 일본 디자이너는 한국인의 복색이 90%정도가 흰색인 것에 착안하여 그 이듬해에 색과 무늬 있는 양복지로 한복을 제작 발표하였다.³²⁾

이와 같이 1905년에서 1936년까지 복식의 변화를 보면 장의 폐지 및 쓰개치마 금지, 통치마·어깨허리의 보급, 백의 금지로 귀결되는 복색개량으로 볼 수 있다. 당시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던 전도부인들과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의 수가 증가하여 차츰 여성의 지위를 상승시키려는 노력과 여성에 대한 뿌리 깊은 유교적인 인습철폐에 대한 요구로 남녀평등을 주장했던 동학과 천주교, 기독교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여학생의 복식형태가 일반 여성에게 이전되는 복식의 전파현상은 적어도 1953년 6.25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는데 당시 여학생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해 보았을 때 여학생은 일반 여성에게 있어서 선망의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근대사회에서 패션 리더와 전파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여학생의 교복과 외국문물을 직접 경험하고 접한 신여성들의 옷차림은 일반 사람들에게 항상 주목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사회적인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여성단체들이 여성의제개량에 대한 제의나 여성양장을 법으로 제정하려는 시도를 법으로 보장받지 못한 것은 1900년도에 관복이 양장으로 제정되어 빠른 보급과 한복에서 양장으로 빠른 착용전환을 보인 남성복과 차이가 있으며 황후가 직접 관심을 보이고 착용을 권하여³³⁾ 전통복에서 서양복으로 획기적인 전환을 한 일본 여성 양장의 전파양상과 대조되는 모습을 보인다.

일제에 의해 주도면밀하게 통치기간 내내 복식개량의 핵심목표였던 백의금지는 흰 색이 우리 민족의 보편적으로 착용하는 선호색이며, 민족정신을 상징하는 민족색임을 알 수 있다. 1919년 3.1 운동을 기점으로 애국심이 고취되어 한복의 착용이 더욱 증가하였는데, 이때 흰색의 한복이 많이 착용되었으리라 짐작될 수 있다. 따라서 흰 색의 대체

색으로 제시되었던 검정색, 회색, 담색, 물색, 청색 등은 일제강점기기간동안 한복의 복색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평상복으로 한번도 주조색으로 사용되지 않았던 검정색은 이 시대 여학생 복식의 대표색이라 할 만큼 복색에 획기적으로 적용되었다. 일제의 강압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복색개량은 의도만큼 충분히 성공하지 않았지만 염료 및 염색법에 관한 관심을 유도하였으며 염색된 의복의 착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³⁴⁾

3. 물자절약 위한 한복개량과 양장의 보급 (1937~1953년 6.25직후까지)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을 시작으로 계속된 전쟁으로 인해 일제는 사회 전반에 걸쳐 물자부족과 함께 초래된 비상시국은 복장에 대한 정부당국의 통제와 연결되어 강압적인 복색개량과 의복의 획일화를 시도하였다.³⁵⁾

1937년 중일전쟁으로 인해 저고리의 길이는 다시 짧아져 바스트라인까지 근접해 올라갔다. 깃 길이가 길어졌으며³⁶⁾ 옷고름을 없애고 단추를 달거나 브로치를 이용하기도 했고³⁷⁾ 1938년 8월 이후 금속제 단추대신 ‘알미라이트’, ‘베크라이트’로 된 단추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이 밖에도 금속제의 ‘후크’, ‘스냅’, ‘머리핀’, ‘브로치’의 사용이 금지되었다. 1943년이 되자 저고리의 길이를 축소시키고 꼬리치마대신 통치마를 입도록 하였으며, 60세 이하 여성에게는 저고리의 고름 대신 단추를 달도록 하였다. 이것은 전쟁으로 인한 물자부족으로 인한 옷감절약과 군수물자의 재료가 되는 금속재질의 부자재 사용을 금지하여 야기된 한복의 개량 형이라 할 수 있다. 또, 일제는 전신체제라는 비상시국을 이용하여 한국인의 복식과 복색을 획일화하려고 시도하였다.³⁸⁾ 우선 1937년 물자절약의 차원에서 공무원, 일반인, 학생의 표준복을 군복모양에 가깝게 제정하였다.³⁹⁾ 같은 해 11월 29일 경찰부인복 제정을 시작으로 전 여성을 대상으로 표준복을 제정하였으며 카키색을 한국인의 복색에 사용하도록 강요하였다.⁴⁰⁾ 지식층과 민간인을 중심으로 한 개량 논의와는 별도로 관에서 일선 행정기관을 통해 색복 장려운동을 꾸준히 시행하고 강습

회를 후원했을 뿐 아니라 소학교 교과서에까지 색복 입을 것을 일대시정강목으로 강요하는 내용을 넣었다. 1940년에는 국민복을 제정하였고 1942년에는 여성용 표준복을 제정하였는데 甲型(양복형), 乙型(한, 화복형), 활동의(1호: 슬렉스, 2호: 몸뻘)가 있었다. 이 여성용 표준복은 후생성 산하의 부인 표준복 연구회에서 1년간의 연구를 거친 후 기능성을 강조한 한복의 모습과 비슷한 형으로 정하였다.



〈그림15〉 몸뻘을 착용한 여인, 사진으로 보는 조선 백년, 동아일보사, p.745

그러나 보수성이 강한 부인들은 한복의 비 활동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한복과 양장의 절충안에 큰 호감을 보이지 않았다.⁴¹⁾ 1940년 여학생들은 전시체제하에서 일본의 노동복인 몸뻘 착용을 강요당했으며 이 실용적인 노동복은 곧, 일반여성들에게까지 널리 입혀졌다.⁴²⁾ 1942년, 여학교의 교복이 세라복으로 개정하여⁴³⁾ 이때까지 한복을 교복으로 입던 학교는 일제의 압력으로 몸뻘나 세라복의 양장으로 교복을 개정해야만 했으나 정신여학교는 일제의 강압에도 불구하고 무궁화를 상징하는 보랏빛 저고리 한복을 계속 착용하였다.⁴⁴⁾

1945년 8.15해방으로 한국의 여성들은 나라를 되찾은 기쁨으로 애국심이 고취되어 한복을 다시 착용하였다. 따라서 해방직후 대부분의 여성들은 전통형의 한복과 통치마, 저고리의 개량한복을 착용하였다. 이 때의 한복은 저고리의 등 길이가 길며, 섹, 깃, 동정은 그 길이에 어울릴 만큼 넓고, 착용모습은 깃이 밟고, 여밈이 깊었다. 반면, 치마는 통치마가 아닌 긴치마로 발목이 보일 정도로 짧았다. 또한 저고리나 적삼에 고름이나 단추대신 브로우치를 다는 것이 유행하였다.

1945년 9월 미군이 우리나라에 진군하면서 태평양 전쟁 중 의류의 결핍 생활에 허덕이던 중에 미

군수물자가 쏟아져 들어왔으며 그중 의류로 쓸 수 있는 낙하산도 섞여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나일론이었다. 처음으로 이 섬유를 접해본 우리나라의 젊은 멋쟁이들은 이것을 머플러로 만들어 목에 감고 다녔다. 나일론으로 만든 스타킹도 암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구호물자와 함께 미군계통에서 유입된 사야지(serge)와 낙하산감 그리고, 밀수품으로 마카오(macao)복지와 각종 모직물, 교직물, 수자직, 호박직, 무표백 샤쓰직, 목면보일, 벨벳, 비르도 등이 범람하였다. 전쟁당시에는 양장지로 군 피복류와 담요류, 구호물자로 많은 의류가 들어왔으며 서양복지의 밀수는 계속되었다.⁴⁵⁾ 따라서 해방 후 미군의 진주와 군정 해외동포의 대거 귀국으로 우리복식의 서구화가 촉진되었다.⁴⁶⁾

그러나, 1945년에 있었던 18세에서 45세까지 서울에 사는 여성 1716명을 대상으로 한 의복착장에 관한 조사를 한복만 입는 사람이 24.5%, 양복만 입는 사람이 34.6%, 한복과 양복을 겸용하는 사람이 40%였다. 또한 이 당시 우리나라 전 성인여성 20~50세까지의 1%만이 양장을 착용하였다는 기록도 있어,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양장의 보급과 수용이 빨랐으나 보수적인 지방과의 차이로 양장의 보급은 전국적으로 일반화되지 않았으며 지역차가 크다고 할 수 있다.⁴⁷⁾ 따라서 지역간의 불균형적인 복식의 발달과 변천, 미군의 진군과 구호물자의 보급으로 인한 양장의 본격적인 도입, 수입품, 밀수품의 범람과 같은 해방 직후의 상황을 볼 때 당시 우리의 복식 문화는 혼란스러웠고 기형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46년 4월호 신천지에 기고된 글을 보면

‘화장품을 위시한 고급 비로드, 드레스, 나이롱, 마카오 양복지는 국산시장에 범람하고 비좁은 골목에까지 널리기 시작하여 지금은 마카오 산이 아니고 비로드나 레스가 아니면 행세를 못할 지경이 되었으며 양복은 마카오, 치마저고리는 벨벳트, 레스, 양단이라야만 신사숙녀의 옷차림이 된다.’⁴⁸⁾ 고 하여 당시 밀수품과 수입품의 범람이 사치스런 소비행태를 꼬집고 있다.

여학생의 교복도 해방을 맞이하여 새로이 제정되었는데 1946년 숙명이 새로 양장교복을 제정하였고 일부 여학교에서는 일제말의 교복을 그대로 지속하다 6.25이후 개정하였다. 대학생들도 교복

이 제정되었는데 대부분 여대생들은 흰 블라우스에 플리츠스커트, 재킷으로 구성된 교복을 입었고 때로는 체크무늬나 무지의 투피스 차림, 개량한복을 입는 경우도 많았는데 저고리의 길이가 약간 짧아졌다.⁴⁹⁾

그러나 개화기나 일제시대와는 달리 여학생 복이 여성복식의 유행을 선도하지 못하였는데⁵⁰⁾ 이것은 해방이후부터 교육받은 여성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패션을 전파하고 리드하는 패션리더의 역할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그 역할을 해방이전보다 좀 더 나아가 있고,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으며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여성들로 격상되었기 때문이다.

해방이후 신문과 잡지가 속속 발간되고 출판사도 우후죽순처럼 설립되었는데 1945년 인민보를 비롯한 일간신문이 중앙과 지방을 합하여 70여종이 되었고 주간이 60여종이 되었다. 이듬해에 신문에는 여성 난에 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독자대상을 부녀 층에 둔 부인신문과 부녀신문이 창간되었다. 또한, 사회가 안정이 되자 양재강습을 자주 개최하고 각종 양복지, 벵타이, 모자, 화장품의 광고가 신문을 연일 장식하였다.⁵¹⁾

당시 유행하던 양장의 스타일은 해방 전부터 계속되어온 밀리터리 스타일이며 대중적인 양장은 일본인들이 작업복으로 입던 어두운 색의 바지와 블라우스를 착용하는 것과, 특정한 유행 없이 헌옷들을 고쳐 입는 것에 불과하였다.⁵²⁾

1949년, 서울시에서 신생활 운동을 전개하여 의식주를 비롯한 예의 등 5개 분과 위원회를 두었는데 이를 신생활장려 추진위원회라 하였다. 이 신생활장려추진위원회는 여러 방면으로 토의를 거듭하고 의류분과 위원회를 개최하여 간단하고도 염가인 여름 남녀 의복을 결정하였는데 개량 한복 모양의 간이복이었다. 일반 가정부



〈그림16〉 1940년대 여성복식

이나 여학생도 전부 동정과 깃이 없는 적삼에 통치마로 정하여 예식과 외출할 때 착용하도록 하였다. 그 표본을 각 백화점에 전시하고 일반에게 적극적으로 알렸다. 동시에 사치품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대책을 수립하여 외래품, 고급양복, 모자, 구두, 장식품 등의 밀수를 막으려는 노력도 계속되었는데 당시 미국에 대한 선망과 미국물자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아서 이러한 심리는 복식에 그대로 반영이 되었다.⁵³⁾

그러나, 1950년 6.25전쟁의 발발과 3년 동안의 전란은 한국복식의 뿌리를 뒤흔들어 놓았다. 전쟁 동안 여성들은 한복의 불편함을 인식하게 되었고 전란으로 인해 우리의 의생활은 세계각지에서 원조해주는 구호물품과 밀수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치마, 저고리보다는 편한 양장을 착용하게 되어 양장부인의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6.25전쟁은 서양복이 오늘날 대중의 생활 속으로 급속히 파고드는 계기가 되었다.⁵⁴⁾ 전쟁 중인 1951년 전시생활 개선법이 공포되었는데 이 법령은 전쟁 중에도 계속되었던 여성들의 외래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방편에서 제정되었으나 1955년 1월까지 시행세칙이 통과되지 않아 실질적인 법적효력은 발생하지 못하였다.⁵⁵⁾

따라서 1937년 전시체제 이후부터 1953년 6.25전쟁까지 한국 여성의 복식은 사회적 혼란에 인한 영향으로 암흑기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한복은 물자절약과 기능성, 활동성만을 추구여 미적인 부분은 무시된 채 개량되었으며 전쟁으로 인하여 피난생활을 경험하게 된 많은 여성들은 한복의 불편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해방이 후 쏟아져 들어오게 된 구호물자와 수입품, 밀수품의 영향으로 양장의 착용이 점차 증가하게 되고 6.25전쟁을 계기로 하여 궁핍한 의복생활 속에서 양장을 착용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게 되었다. 한국여성의 양장착용 증가는 1890년대 말 한국에 처음 서양복이 등장한 이래 초기에는 호기심과 상대적인 사회적 지위의 우월감에 의하여 착용동기가 부여되었다면 점차 복식의 기능성과 합리성, 실용성의 인식증대와 공유가 이루어져 1953년 전쟁을 계기로 한복에서 양장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이전 시대와는 여학생들의 교복이 더 이상 여성복식제도에서 혁신적인 선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였고, 패션리더집단이 이전시대부터 고등교육을 받아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들로 전이되었다. 그 이유로는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의 수가 증가하여 더 이상 여학생들은 사회적 전망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4. 개량한복의 쇠퇴와 예복기능 강화 (1953 ~ 1979)

전쟁이후 한국 여성복식은 한복에서 양장으로 착용하게 되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더 이상 한국 여성의 일상복이 한복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은 한복에 비하여 양장이 가지고 있는 기능성과 활동성의 우월에 우선순위를 둔 여성들의 자발적인 선택이었으며 전쟁으로 인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했던 많은 여성들이 치마와 저고리를 벗어 던지고 양장을 착용했던 것이다. 1953년 종전이 선언되고 195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한복의 양복화가 가속되고 있었으나 아직 많은 사람들이 양복과 한복을 겸용하고 있었고 나아가 나이가 많은 계층에서는 여전히 한복을 고수하였다.⁵⁶⁾

한복은 6.25사변으로 인해 실용화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저고리 등 길이가 길어지고 고름대신 단추나 매듭, 브로치를 달았다. 특히 깃 넓이나 동정 넓이가 개화기 이후 가장 넓은 경향을 나타냈다.⁵⁷⁾

1950년대 말 정부는 신생활 운동의 일환으로 국민 생활복, 새 생활복, 국민족, 표준 간소복이라는 명칭과 함께 활동성을 고려한 김소한 복장이 계속 발표되었는데 이는 양장과 함께 한복의 활동성 및 간편함, 실용적인 것에 목적을 둔 개량 한복이었다.⁵⁸⁾ 이 때의 한복 개량운동은 일제하의 강제적인 것과 달리 애국심에서 발상된 국민 생활 검소화 운동이었다. 그러나 서양복에 비해 한복의 비 활동성과 비실용성이 인식되어 착용자가 차츰 줄어들게 되었다.⁵⁹⁾ 이에 비해 전쟁 이후 구호물자와 구제품, 밀수품 그리고 미군부대에서 유출되는 의료들을 우리 몸에 알맞게 고쳐 입게 되면서부터 양장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이 높아졌다. 또한 외국 영화의 영향으로 영화 속 여주인공의 의복과 헤어스타일

이 당시 여성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⁶⁰⁾ 1950년대 후반은 주문복 중심으로 의복제작 사업이 발달하여 양장점이 대도시 변화가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이때, 디자이너란 명칭을 사용하여 그 사회적인 위치와 역할을 확립하게 된다. 1956년 국내에서 최초로 서울 동화백화점(현 신세계백화점)에서 서라벌 양재전문학원의 Costume Show가 열렸고 같은 해의 10월 노라노 패션쇼가 있었다.

1957년 서수정의 의상발표회 같은 해 10월 최경자의 복장작품전이 '여원사'의 후원으로 반도호텔에서 열렸다.⁶¹⁾



〈그림17〉 아침길, 이병상, 1956년

1953년 일본을 통해 본격적으로 수입된 나일론은 의생활 전반에 걸쳐 개혁을 가져왔으며 여성들은 나일론의 투명함을 즐기려는 현상이 나타나 흰색 나일론 블라우스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⁶²⁾ 나일론이 이러한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한복지, 양복지등 의복의 어느 곳에도 사용되었다.⁶³⁾ 점차 사회가 안정되어가자 1953년의 민간소비 지출 중 의료 및 장신구의 소비량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60년대까지 피복비의 지출액이 계속 상승세에 있어 의복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⁶⁴⁾ 또한 여성의 사회활동의 증가로 인해 일상복이 아닌 기능성을 가진 활동복으로서 양장에 대한 수요가 매우 많아져 의복제작 업자들

은 기성복을 제작,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1950년대의 기성복은 의복으로서의 기본적 기능성으로 중요시 되는 인체에 대한 과학적인 체계 조사가 되어 있지 않아 업자들 간에 자기 경험으로 얻은 좁은 식견으로 통일성 없는 치수를 참고로 하여 제작하였기 때문에 착창도가 좋지 않고 봉제적인 측면에서도 직물과 실, 땀수, 바늘과의 관계, 직물의 곡면화 및 접착법에 관한 문제 등 과학적인 기술 부족으로 실용 내구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솔기선에 잔주름이 발생하는 등, 외견상 형태도 매우 세련되지 못하여 옷의 구실을 제대로 못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기성복을 착용함으로써 자신의 품위나 인격이 손상되지 않을까하는 심리적인 경향에서 기피하게 되었다.

1960년 12월, 한국 디자이너 협회주최로 개최된 신생활디자인 쇼는 실용적인 면에 치중한 개량한복과 양장이 발표되었는데 옷고름 대신 단추를 달고 깃과 길이를 변형시킨 개량 두루마기 등이 있다. 아리랑 드레스도 당시 선을 보였다. 특히 1961년 5.16혁명 이후로 신생활운동이 계속되어 신생활복이 등장하였는데 이것은 55년도의 국민생활 검소화 운동과 그 맥을 같이 하였다.⁶⁵⁾

신생활복은 새로운 살림에 입혀질 옷으로 '새것'이란 개량된 새 시대에 잘 맞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신생활복은 우리 환경에 맞고 경제적이면서 입어서 활동적이고 무리가 없는 시대적인 아름다움을 지니는 것으로 간편하고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것에 역점을 둔 개량 한복이다.⁶⁶⁾ 그 해 국민운동 서울지부와 한국 디자인협회, 한국 배우협회 공동 주최로 여성 신 생활복 행진이 있었다.⁶⁷⁾ 1963년 6월 '한일 친선 패션쇼'에서는 볼레로 식의 개량복 외에 한복의 다양화를 시도하였다. 이와 같이 1960년대에 들어선 한복의 개량운동은 양단이나 비단 등의 한복치를 사용했을 뿐 우리 옷이라는 느낌을 찾아 볼 수 없었고 한복의 개량이라기 보단 양장이나 다름없었다. 이러한 개량 한복은 고유미를 상실하여 품위가 없고 경박해 보인다는 이유로 대중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외면당하였다.⁶⁸⁾

이러한 한복개량에 대한 비판은 20세기 초반부터 계속되어왔는데, 그 이유는 위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우리 전통적인 고유의 미를 상실하고 서양복의 구성을 한복에 적용하여 그 옷을 입었을 때, 양



〈그림18〉 1950,60년대의 한복

장을 입었는지 한복을 입었는지 알 수 없는 주체성이 상실된 경우를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또, 시대와 그 사회의 풍습을 외면한 채 이상만을 쫓은 조선 중기와 후기의 유학자들의 복식 개량 안이 현실적으로 외면당한 이치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반면 외출용 의상으로서의 한복은 명절 또는 특별한 모임에 착용하는 예가 늘어났는데 이러한 영향으로 궁중복식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한복 개량의 노력은 퇴조하는 현상이 나타난다.⁶⁹⁾

1970년대는 지속적인 산업화과정에 따른 사회 변동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유교가치 지향성의 전통성이 상실되어가고 가치관의 혼동 속에서 다양한 변화가 뒤따르게 되는데 매스 미디어의 보급은 대중문화를 정착시키고 이에 따른 문화변동 복식 변화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⁷⁰⁾ 국민경제의 발달로 양장이 점차 대중화 되었으며 기성복 시대의 돌입을 더욱 가속화 하였다. 이런 전체적인 의복 수요의 증가로 디자이너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소수의 디자이너들이 소규모 부딕 형태로 기성복을 생산,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중반이후 대기업이 기성복산업에 참여 하여 미국, 구미 등을 중심으로 한 노하우를 도입하고 생산설비를 현대화, 자동화하였다. 또한 학계를 중심으로 체형과 의복구성법에 관한 연구를 비롯하여 봉제기법,

부자재 등에 관한 연구를 행하여 바람직한 기술지도의 일환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이론으로 제공하였다.⁷¹⁾ 국민체위 조사는 1979년과 1986년 총 두 차례에 걸쳐 기준 치수가 제정되었다.⁷²⁾ 1960년대 개량한복이 더 이상 사람들에게 우리 옷으로써의 존재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국적 없는 옷으로 전락해버린 이후 70년대 한복은 궁중한복과 조선조 후기의 한복에 기초한 전통형의 한복으로 회귀하는 형태를 보인다. 또 일상복으로서의 착용은 점점 적어지고 예복의 기능을 강조하기위해 한복은 점점 더 화려해 졌고 60년대 말부터 한복위에 과잉 장식현상이 보이며 1975년부터부터 장식이 없는 부위가 거의 없을 정도로 한복의 장식이 확산되었다.

1953년부터 1980년 이전까지의 한복의 복식변화를 살펴보면 전쟁 후 양장 보급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일상복, 외출복으로 착용을 했고 1960년대에 들어서 양장이 우리나라 여성의 일상복으로 자리 잡았다. 이것은 개화기 때 서양복이 도입되었지만, 법으로 관복이 양복화되어 급속히 전파된 남성들의 양상과는 달리 한복의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 기능성과 활동성을 개량하여 서양복보다 우리 옷을 더 많이 착용하였던 여성들이 전쟁 동안 피난생활을 겪으면서 한복의 불편한 점을 인식하게 되고, 당시 궁핍한 전후 사정으로 인해 구호물자로 받은 의복을 착용하여 경험으로 양복의 기능적, 활동적인 우월성을 각인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한복개량에 대한 노력은 이 시기에도 계속되어 1954년 국민생활 간소화 운동, 1955년 국민 생활 검소화 운동, 1956년 신생활 운동과 같이 정부주도의 대 국민적인 생활 개선 절약 캠페인에서 활동적이고 검소한 의복을 장려하였고 1961년 5.16혁명 직후 전개된 신생활 운동에서 신 생활복을 제시하였으며 1963년 한·일 친선 패션쇼에서도 서양 의복 구성이 많이 가미된 개량한복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때 제시된 개량한복은 전통적인 미를 상실하고 품위가 없어 경박하고 한복의 개량이긴 보단 양복과 다름없다는 비난을 받아 대중에게 외면을 받았고 오히려 명절 또는 특별한 모임을 위한 예복의 기능이 강화되어 장식적이고 화려한 경향을 보이는 외출복으로 발전했다. 따라서 한복은 다시 전통적인 디자인이 추구되어

저고리가 짧아지고 고름과 치마의 길이가 길어졌다. 이러한 경향은 근대화가 진행되어 산업화되고 경제가 발전될수록 전통복식은 일상복식에서 사라지고 오직 국가 명절이나 관광 및 여행 포스터에서만 발견되어 국가 경제발전과 전통복식을 관련지어 설명한 Bell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현상이기도 하다. ⁷³⁾전양진(1999)은 계량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복식현상을 설명하고자 1954년부터 1974년까지 조선일보에 게재된 사진들을 토대로 여성복식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외출복으로는 1954년부터 1960년까지 개량한복이 가장 많이 착용되었고 1961년부터 1968년까지 서구식양장이 가장 많이 착용되었다. 특이한 점은 1962년을 제외하고는 전통한복이 2번째로 많이 착용되었는데 사진의 자료로는 중년 및 노년의 여성들이 착용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 시기에서부터 개량한복이 대중들로부터 잘 착용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1969년부터 1974년까지는 양장이 가장 많이 착용되어 양장이 일상복으로 완전히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상복으로 1955년부터 1964년까지 개량한복이 평상복으로 가장 많이 관찰되었고 그 다음으로 서구식 양장형태가 많았다.⁷⁴⁾ 1965년부터 1974년까지는 양장차림이 평상복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개량한복이 많았다. 이와 같이 1953년 전후, 양장의 보급이 급속히 빨라진 이후에 양장 착용자가 점점 증가하여 1960년대 중반을 전후로 하여 양장이 우리나라 여성의 일상복으로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옷의 변화를 패션으로 보편적인 정의를 내린다면 한국 여성복식패션을 한복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은 1953년 이전까지이며 그 이후부터는 서양복으로 한국여성복식의 변화를 감지해야한다. 또한 1953년 전후부터 양장의 착용이 급증하여 우리나라 여성들의 일상복으로 착용되었기 때문에 우리 옷인 ‘한복’에 대해 전통적인 민족복식이란 개념이 성립된 것도 이 때부터일 것이다.

5. 생활한복의 등장과 세계화(1980년 ~)

1970년대의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한 물질문명과 개인주의의 만연과 무분별한 서구문화의 수용은 우리 고유문화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80년대

중반 유행한 영어알파벳 프린트⁷⁵⁾ 셔츠의 유행은 대학가에서부터 시작하여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전통 문화 보습을 위해 우리 옷 개발이 시작되어 '우리 옷 입기운동'이 전개되었다. 또한 1980년대부터 컬러 TV가 보급되어 방송대중매체를 통한 문화의 전파력이 더욱 증대하였으며 86년, 88년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과 같은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국제행사를 유치하여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였다. 이때까지의 한복은 70년대 예복의 기능이 강화되고 장식적인 성격이 강했으며, 전통적인 한복의 구성형태를 보였다. 저고리의 길이가 극히 단소화되어 치마의 길이는 바닥에 끌릴 정도로 길었고 그 형태는 후레아 식으로 보통 8폭이었는데 13폭까지 넓어져 치마가 매우 풍성하였다.⁷⁶⁾

1984년 대학가에서 개발하기 시작한 우리 옷은 한글이 프린트된 티셔츠를 시작하여 개화기 때 개량한복의 형을 답습한 두루마기와 흰색 바지저고리, 검정 통치마와 흰색 저고리 차림 이었다. 이 때부터 개량되어 보급되기 시작한 한복을 '생활한복'이라 하였는데 이전의 개량한복과의 차이점은 바로 60년대까지의 한복의 생활화와 80년대 이후 한복 생활화는 서로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는 것이다.⁷⁷⁾ 60년대는 물자절약과 검소한 생활을 위한 한복의 개량이었는데 한복의 서구화를 지향하였으며, 80년대의 한복의 생활화는 우리 전통문화를 보급하고 그 주체성을 확립하여 한복이 현대화를 지향하면서도 그 가운데 전통성을 추구하는 특성을 가졌다. 또한 대학가의 생활한복은 '민중한복'이라고도 명칭 되었다. 당시 생활한복 제작자들은 근대화 과정에서 역사적인 시련을 겪었던 민중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여 남과 북의 공통된 전통문화를 회복하고자 한 것으로 이념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미적인 면을 소홀히 하였던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념적인 특성은 생활한복의 내용적인 미로 남아 현재까지 작용하고 있다. 그 이듬해인 1985년도부터 전통미를 살린 한국 의상을 위한 작업과 서양복을 생활한복에 도입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였는데 서양복 구성이 적극적으로 도입된 배경에는 무엇보다 서양복 업자들의 유입을 이유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서양복 구성의 도입은 초기에 전통한복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국적 없는 생활한복'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낳았다. 전체적으로 전통적인 문화를 모색하고 추구하는 사회분위기가 지속되자 서양복 업계에서도 한국적인 디자인 모색에 관심을 가져 서양복에 한국적 디자인을 가미한 작품을 제작하였다. 따라서 생활한복과 서양복의 경계가 모호해지기도 하였다. 또한 생활한복만을 디자인하고 판매, 보급하는 생활한복전문점이 1987년 '질경이 우리 옷'을 선두로, '돌실나이', '여럿이 함께', '온고지신', '용비어천가', '씨실과 날실' 등 줄줄이 설립되었고 기타 한복업체, 디자이너들도 생활한복 디자인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였다. 1988년 올림픽이 개최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외국인들의 한국방문이 많아지자 한복은 우리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매개체역할을 하면서 생활한복도 장식성이 강해지고 화려한 디자인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그러한 경향이 너무 지나쳐서 미적 감각을 상실한 것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1990년도에 들어서서 한복은 양장과 마찬가지로 개성표현이 중요시 되는 가운데에서도 전통으로의 회귀현상이 나타나 전통성을 추구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잃지 않는 디자인 개발과 소재 개발에 주력을 기울였다. 또한 조선 후기시대에만 치중되었던 한복디자인의 응용이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 초기, 중기, 개화기 등 역사속의 다양한 연대를 활용하였고 천연 염색과 면, 마, 폴리 등의 소재를 다양하게 가공하여 소재의 혁신을 이끌어 냈다.

정부는 1996년 12월 '한복 입는 날'을 제정, 1997년 공포하여 한복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생활한복을 일상복으로 보급화하기 위해 힘을



〈그림19〉 1997년 미란다 호텔 유니폼, 한복, 그여유와 생명력, p.11

실어 주었으며 생활한복의 용도 역시 다양해져 일상복뿐만 아니라 회사나 음식점, 호텔 등의 유니폼으로 착용되거나 혼례복으로 응용되었다.⁷⁸⁾

1997년 IMF외환위기라는 국가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민족과 개인에 대한 자부심을 유지함으로써 긍정적 자아 정체감을 유지하려는⁷⁹⁾ 노력과 더불어 생활한복의 착용이 증가하고 그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남대문이나 동대문의 많은 의류제조업자들이 생활한복 제작에 뛰어들었고, 이들이 시장에 내어놓은 것은 기존 생활한복전문점이나 디자이너들이 연구하여 상품화한 생활한복들을 그대로 베끼거나 조금 수정하여 대량생산하였다. 이러한 한복은 기존의 생활한복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생산하였기 때문에 사용한 옷감의 품질이나 옷의 맞춤새가 좋지 못하였고 섬세한 디자인들이 표현되기 힘들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생활한복의 전체적인 이미지는 점점 하락하게 되었고, 곧 시장을 비롯한 생활한복업계의 위기가 왔다. 따라서 이 시기 이후 자생력 있고 생활한복의 원래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은 경쟁력 있는 몇 개의 업체만이 현재까지 존립하고 있으며, 현재에는 생활한복을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속에서 '우리 옷'의 자부심을 걸고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세계 각지의 의류 박람회와 패션쇼에 참석하여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생활한복업계와 디자이너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생활한복은 대중적으로 보급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전통한복보다 고급스럽다거나 세련되고, 일반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⁸⁰⁾ 한복의 생활화를 모토로 디자인 개발과 보급에 노력중인 생활한복은 오히려 명절에 착용하거나 각종 모임이나 행사, 결혼식에 참가 시 외출복으로 착용하는 경우가 일상복으로 착용되는 경우보다 많았다.⁸¹⁾ 생활한복이 전통적이며 타인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으며, 전통 한복에 비해 착용방법이 간편하고 실용적이라는 일반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⁸²⁾ 오히려 많은 젊은이들이나 성인들에게는 나이가 들어 보이고, 여유 있는 품새 때문에 뚱뚱해 보이는 점,⁸³⁾ 현대화 되었지만 일상복으로 입기엔 전통적인 이미지가 강조되어 타인의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이 생활한복이 일상복으로 보급되는 것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생활한복

의 염색 상태와 현재적인 감각이 결여된 색채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만과 젊은 감각의 전통 색채개발과 염색법 개발에 대한 많은 제안이 있었다. 현재 생활한복업계의 제작자들은 대부분 1984년 '우리 옷 운동'을 주도하고 이른바 대학가의 민중운동과 함께하면서 민족의 주체성과 전통성 확립이라는 시대정신과 철학이 투철한 사상적, 사회적 배경을 업고 있다. 앞서 밝혔듯이 생활한복의 이념적인 특성은 내용적인 미로 남아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전통적인 미를 현대화하는데 있어서 창조적 디자인의 한계가 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복식 조형을 보는 시각에 있어서 생활한복업계에서는 하나하나의 디테일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현재에 통용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복식 조형은 전체적인 실루엣, 즉 형(型)을 비중을 높이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각의 차이가 오늘날 생활한복이 대중화되지 못한 이유라고 생각된다.

앞선 시대의 한복개발 운동이 실패한 연유는 개량한복이 서구화를 지향하여 전통적인 고유미를 상실하여 경박하고 품위를 잃었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그 시대의 풍습과 사회의 현실을 반영시키지 못하고 이상적인 복식제도만을 추구하여 대중의 호응을 얻지 못한 결과실패로 이어졌다. 따라서 생활한복이 현재의 시점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전통의 아름다움을 옷 속에 담겨있으면서 현재의 미적 가치관이 충분히 반영되어 대중화의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표2> 한복의 시대별 변화

	한복 개량의 맹아기 (1894년 이전~ 1905년 이전)	통치마저고리와 백의금지의 시대 (1905년 ~ 1936년)	물자절약을 위한 한복개량과 양장의 보급 (1937 ~ 1953년 6.25직후까지)	개량한복의 쇠퇴와 예복기능 강화 (1953 ~ 1979)	생활한복의 등장과 세계화 (1980년 ~)
사 회	19세기 후반 천주교의 유입, 개항, 甲申衣制改革 이화학당이 창립 일본으로부터 재봉틀 도입 갑오경장, 단발령	통감부설치, 3.1운동, 한복개량에 대한 활발한 논의 색복장려운동, 여성단체들의 사회운동	중일전쟁, 제 2차 세계대전으로 전시 체제. 8.15 해방, 미군의 진주, 구호 물자와 구제품, 수입품, 밀수품 의류 및 의료의 유입 1948년 정부수립, 1950년 6.25전쟁 발발	6.25전쟁 휴전, 구호물자와 구제품, 밀수품의 범람, 양장착용의 급증, 전쟁복구사업 산업 화, 서구화, 과학기 술의 발달, 국민생활 간소화 운동, 국민 생활 검소화 운동, 신생활 운동, 개량한복의 쇠퇴	급속한 경제발전 으로 인한 물질주 의, 개인주의의 만 연, 서구문물의 무 비판적인 수용으로 인한 자각과 반성, 우리 옷 입기 운동, 국제경기유치, 복고 풍에스닉모드, IMF 외환위기, 2002년 월드컵
개혁의 주도	정부	전도부인, 여학생, 신여성, 통감부	통감부, 대한민국 정부	정부, 디자이너, 민간단체	대학생, 민간단체, 디자이너
개혁내용	衣制의 간소화, 관복의 양장화, 양장과 한복의 혼용 상하동색의 한복등장	의복의 간소화, 장 의폐지, 쓰개치마 금지, 여학생교복 의 上白下黑 통일, 저고리의 길이가 길어짐, 통치마·어깨허리 의 보급	복식의 획일화, 간 단화. 물자 절약을 위한 표준복 제정. 경작부인복제정, 복 색규제, 카키색 장 려, 뽀뽀착용, 세라 복보급, 구호물자 및 구제품, 밀수품 등으로 유입된 서 양복으로 인한 한 복의 서구화	양장과 함께 한복 의 활동성 및 간편 함, 실용적인 것에 목적을 둔 개량한 복, 서양복의 구성 법을 많이 사용.	전통적인 한복의 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 천연염색, 천연직물이용
소재	紬, 苧, 麻布, 綿織物,, 중국의 고급 絹제품, 生金布, 寒冷絲	면직물 견직, 絹綿交織物	마카오(macao)복 지와 각종 모직물, 교직물, 수자직, 호 박직, 무표백 샤쓰 직, 목면보일, 벨 벳, 비르도, 레스, 양단, 뉴-통	나일론, 공단, 양단 인조공단, 코오롱 양단, 테트론, 무 명, 옥양목, 레이 스, 실크, 실크양 단, 원양단, 삼색양 단, 유동, 갑사, 모 시, 본견, 주아	면, 마, 모, 모시 등의 천연직물, 천 연섬유와 합성섬유 의 교직물
의상	저고리가 매우 짧 고 깃은 당코 깃으 로 깃 나비가 불과 3cm안팎이었으며 고름은 넓고 길음.	저고리와 짧은 저 고리, 긴치마와 짧 은 치마의 이중구 조, 통치마저고리 형.	저고리의 길이 축 소. 깃 길이가 길어 졌으며 꼬리치마대 신 통치마 착용. 옷 고름 대신 단추나 스냅, 등 여밈의 방 식이 간소화.	저고리의 등 길이 가 길어지고 고름 대신 단추나 매듭, 브로치를 달음. 특 히 깃 넓이나 동정 넓이가 개화기 이 후 가장 넓은 경향.	80년대 초기의 생 활한복은 개화기 때의 통치마·저고 리형, 이후 삼국시 대, 고려, 조선 초 기, 중기 등의 다양 한 연대의 복식이 활용. 깃과 섹 등 한 복의 디테일한 부 분의 현대적 디자 인 활용

IV. 결 론

본 연구는 현재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는 한복, 개량한복, 생활한복의 개념과 특성을 선행연구에 나타난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한복변천의 흐름에 따라 파악, 형성되는 용어를 정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복은 조선후기 복식의 형을 기초로 하여 1910년대부터 전도부인과 여학생, 신여성들에게 개량되고 착용되기 시작한 개량한복과 구분되어 긴치마와 긴 고름을 가진 저고리로 구성된 전통형의 복식을 말하며 1953년 6.25전쟁 후 양복의 착용이 급증하여 한복이 예복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되기 시작하여 그 정체성을 확립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오늘날까지 명절이나 특별한 모임, 결혼식 등에 참석하기 위하여 정숙성과 예의성이 강조된 전통형의 복식을 말한다.

개량한복은 1910년대부터 한복의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 활동성과 기능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전도부인과 여학생들이 주도로 하여 한복을 개량한 통치마저고리형의 한복을 말한다. 이 개량한복은 1960년대까지 일상복으로 착용되었다가 너무 서구화되어 고유한 미를 상실하여 국적 없는 경박한 옷이라는 평가를 받아 점차 대중으로부터 착용범위가 축소되어 1970년대 말에 가서는 사라지고 오히려 예복으로서 장식성이 가미되어 화려한 긴치마저고리의 전통형의 한복이 발달한다.

생활한복은 계속된 산업화에 따른 물질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서구문물을 비판 없이 수용하여 고유한 문화가 사라지고 외국문화가 범람하는 것에 대한 자성에 따른 전통적인 우리 문화 보급을 위해 1984년 대학가에서부터 '우리 옷 입기' 운동을 시작으로 하여 전통적인 한복의 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일상 속에 보급하는 것을 모토로 하여 발생한 실용적인 한복이다. 60년대 한복의 생활화는 물자절약과 검소한 생활을 위하여 한복의 개량이었고 서구화를 지향하였으나, 80년대의 한복의 생활화는 우리 전통문화를 보급하고 그 정체성을 확립하여 한복이 현대화를 지향하면서도 그 가운데 전통성을 추구하는 것에 그 차이가 있다.

33편의 근대이후 한복의 변천과 생활한복에 대

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변천의 특징이 있었다.

첫째, 근대이전에도 복식개량에 대한 논의는 조선 초기, 중기에도 있었으며 1910년부터 꾸준히 1960년대까지 계속되었으나 결과적으로 그 개량안이 실패한 이유는 복식의 기능성과 활동성, 실용성을 강조한 미적인 부분을 중시하지 않았고, 특히 근대이후의 한복개량은 서구화지향으로 한복의 전통적인 미를 상실하여 경박하고 어느 나라 국적의 옷인지 모르겠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것은 개량의 방향이 당시의 미의식과 풍습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상적인 복식제도를 추구하였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였다.

둘째, 1900년에 관복이 양복화 되는 것이 법으로 제정되어 남성복식이 한복에서 양장으로 전환하는 속도가 매우 빨랐던 것에 비해, 여성복은 여러 여성단체들이 여성복식개량과 양장화를 법으로 제정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복식은 공식적인 복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으로 제정되지 못하였는데, 복식의 개량내지 복식의 변화를 법으로 제정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그 복식이 변화되거나 다른 의복으로 바뀌어 착용되는 속도에 차이를 준다. 참고로 여성복식의 양장을 1880년대 법으로 제정한 일본과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셋째, 8.15 해방이후 신여성과 여학생들의 교복은 더 이상 한국여성복식제도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였는데, 이것은 3.1 운동 이후 여성단체의 운동방향이 구국에서 여성교육운동, 노동운동으로 전환하였고 해방 즈음에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의 숫자가 증가하여 이들이 더 이상 사회의 선망의 대상이거나 패션을 리드하는 역할을 할 수 없었다. 대신 그 역할을 이미 교육을 받아 사회에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는 젊은 여성들에게로 전이되었는데 이것은 여성교육의 향상이 한국여성복식구도의 성숙하게 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6.25 전쟁이 발발한 후 전쟁기간동안 여성들은 한복의 불편함을 인식하게 되어 차츰 양장을 착용하게 되었는데, 전쟁직후 외국의 구호물자와 구제품, 밀수 등을 통하여 외국의 양장이 쏟아져 들어와 당시 피폐하였던 우리의 의료사정을 메워 주었는데, 이로 인하여 양장여성의 수가 급증하게 되었다. 점차 양장을 착용한 사람의 수가 증가하였

으며 1960년대에 들어서는 일상복으로 완전히 정착하게 되었다. 따라서 여성복식의 변화를 패션이라고 한다면 1953년 이전까지는 한복을 주축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이후부터는 양장을 중심으로 여성복식의 변화를 파악해야 한다.

이와 같은 여성한국복식의 역사적인 변천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생활한복 역시 현재의 미적인 기준에 충실하여 이 시대의 가치와 전통을 훌륭하게 조합하는 것도 시급한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대중으로부터의 호응과 착용의사동의를 이끌어내어 일상 속에서 착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절실하다. 비단 생활한복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한복이 이 시대에서 도태되지 않고 사람들로 부터 착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사항이다.

따라서 한복, 개량한복, 생활한복에 대한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크게 3가지 발전방향으로, 한복의 생활화, 한복의 세계화, 한복의 산업화이다.

한복을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한복의 인식을 제고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한복의 맵시, 특성, 전통복식의 역사를 소개하는 사이트를 개설하고, 착용용도를 더 다양하게 개발하여 한복의 실용화와 현대화를 추진해야 한다.

예복의 성격이 강한 한복은 더욱 고급화하여 전통적인 미를 다듬고 현대화한다. 가격 면에서 중저가로 형성되어 있는 생활한복보다 한복은 상대적으로 비싼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결혼식이나 환갑과 같은 특별한 때가 아니면 좀처럼 마련하려 하지 않는데, 이런 가격의 맹점을 활용하여 한복대여센터를 활성화하고, 한복의 질이나 디자인에 대한 신뢰감 구축을 위해 브랜드 화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1996년에 제정되어 1997년에 선포된 '한복의 날' 행사는 현재 거의 유명무실화되어 가고 있는데, 다시 활성화시켜 전 국민적인 관심을 유도한다.

한복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우선, 중국의 치파오, 일본의 기모노처럼 인식될 수 있는 디자인과 색, 소재를 개발해야 하고, 전통문화를 담은 우리 옷을 홍보하는데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 한복의 세계적인 이미지를 개발하기 위해 우선 전통복식관련 교과과정을 설치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하며, 정부에서는 한복산업을 문화산업의 핵심 산업으로

인식하여 한복연구센터, 한복발전센터, 한복디자인연구센터와 같은 연구시설이 설립되고 육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센터를 거점으로 하여 산업과 학계의 교류를 하여 활성화할 수 있으며 현실적이고 깊이가 있는 연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류 스타 및 연예인, 유명인사를 활용하여 한복을 세계에 홍보하고 국제적인 대회를 유치하여 전통한복 전시회를 개최하거나, 한복과 관련된 행사를 국제적인 festival로 발전시켜나가 외국인의 관심과 방문을 유도한다.

한복의 산업화를 위해서 우선 대량생산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 한복의 칫수를 표준화하고 pattern을 표준화하며 무엇보다 기능적이고 현대적인 소재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아직까지 주단이나 개인 샵 위주로 운영되는 한복업계를 하나로 단일 시킬 수 있는 구성체가 필요하며 이 구성체를 통해 그들의 노하우와 생산, 경험에서 나오는 실용적인 봉제기법이나 패턴구성방법 등을 교류하여 한복제작기술의 향상과 업계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참고문헌

- 1) 김진구 (1986). 복식과 사회. *한국생활과학연구* 4, p.297.
- 2) 이춘희 (1999). 현대복식에 반영된 동양적 이미지의 기호학적 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박사학위청구논문*, pp.53-55.
- 3) 정혜경 (2002). 1980년대 이후 생활한복의 전개양상. *교육이론과 실천* 12(2), p.252.
- 4) Ibid., p.261.
- 5) 홍나영 (1990). 한복개량 운동에 관한 고찰. *복식* 15, p.145.
- 6) 김경희, 조효숙 (1997). 한국 개화기 여성복식의 변천요인. *복식* 32, p.151.
- 7) Ibid., pp.152-153; 유수경 (1988). 한국여성양장의 변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p.130.
- 8) 이명희 (1981). 근대 한국복식의 변화 요인. *복식* 5, p.155.
- 9) Ibid., p.131.

- 10) 김경희, 조효숙 (1997). Op. cit., pp.151-152.
- 11) 남윤숙 (1992). 한·일 여성복의 양장화에 관한 비교연구. 복식 19, p.43.
- 12) 김경희, 조효숙 (1997). Op. cit., p.153.
- 13) 남윤숙 (1990). 한국현대여성복식제도의 변천 과정연구. 복식 14, p.100.
- 14) 최경순, 김선령 (1999). 생활한복의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1), p.35.
- 15) 김경희, 조효숙 (1997). Op. cit., p.155.
- 16) 유수경 (1988). Op. cit., p.45.
- 17) 이명희 (1981). Op. cit., p.158.
- 18) 김경희, 조효숙 (1997). Op. cit., p.155.
- 19) 이명희 (1981). Op. cit., pp.158-159.
- 20) 김경희, 조효숙 (1997). Op. cit., p.155.
- 21) 이명희 (1981). Op. cit., p.159.
- 22) 유수경 (1988). Op. cit., p.144.
- 23) 이명희 (1981). Op. cit., p.59.
- 24) 남윤숙 (1992). Op. cit., pp.42-43.
- 25) 유수경 (1988). Op. cit., p.143.
- 26) 남윤숙 (1990). Op. cit., p.104.
- 27) 홍나영 (1990). Op. cit., p.143.
- 28) 최경순, 김선령 (1999). Op. cit., p.36.
- 29) 남윤숙 (1990). Op. cit., pp.104-105.
- 30) 남윤숙 (1992). Op. cit., p.47.
- 31) 최경순, 김선령 (1999). Op. cit., p.37.
- 32) 남윤숙 (1990). Op. cit., p.109.
- 33) 남윤숙 (1992). Op. cit., p.42.
- 34) 남윤숙 (1990). Op. cit., p.105.
- 35) 남윤숙 (1992). Op. cit., p.48.
- 36) 김경희, 조효숙 (1997). Op. cit., p.159.
- 37) 홍나영 (1990). Op. cit., p.143.
- 38) 남윤숙 (1990). Op. cit., p.106.
- 39) 홍나영 (1990). Op. cit., p.143.
- 40) 남윤숙 (1990). Op. cit., pp.105-106.
- 41) 홍나영 (1990). Op. cit., pp.143-144.
- 42) 김경희, 조효숙 (1997). Op. cit., p.159.
- 43) 남윤숙 (1992). Op. cit., p.46.
- 44) 김경희, 조효숙 (1997). Op. cit., pp.159-160.
- 45) 박길순 (1990). 과학기술의 발달이 한국 여성복식의 변화에 미친 영향. 복식 15호, p.113.
- 46) 박길순 (1993). Op. cit., pp.44-45.
- 47) 유수경 (1988). Op. cit., pp.206-207.
- 48) 박길순 (1993). Op. cit., p.58.
- 49) Ibid., p.55.
- 50) 유수경 (1988). Op. cit., p.210.
- 51) 박길순 (1993). Op. cit., p.40.
- 52) Ibid., p.45.
- 53) 최경순, 김선령 (1999). Op. cit., p.38.
- 54) 박길순 (1993). Op. cit., pp.44-45.
- 55) 홍나영 (1990). Op. cit., p.144.
- 56) 진미희 (1990). 한복변천에 관한 연구. 복식 15, pp.151-152.
- 57) 최경순, 김선령 (1999). Op. cit., p.38.
- 58) 진미희 (1990). Op. cit., pp.152-153.
- 59) 최경순, 김선령 (1999). Op. cit., p.38.
- 60) 박길순 (1993). Op. cit., pp.44-46.
- 61) 유수경 (1988). Op. cit., pp.228-230.
- 62) Ibid., p.113.
- 63) 박길순, 서희영 (1991). 한국 현대 여성복식의 변천 연구. 충남생활과학연구지 4(1), p.23.
- 64) 박길순 (1993). Op. cit., p.52.
- 65) 홍나영 (1990). Op. cit., pp.144-145.
- 66) 진미희 (1990). Op. cit., p.157.
- 67) 홍나영 (1990). Op. cit., p.145.
- 68) 남윤숙 (1990). Op. cit., pp.111-112.
- 69) 최경순, 김선령 (1999). Op. cit., p.39.
- 70) 박길순, 서희영 (1991). Op. cit., pp.33-34.
- 71) 박길순 (1990). Op. cit., pp.109-110.
- 72) Ibid., p.111.
- 73) 전양진 (1999). 경제발전과 복식의 서구화와의 관계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3(8), p.60.
- 74) Ibid., pp.61-63.
- 75) 박길순 (1990). Op. cit., p.116.
- 76) 진미희 (1990). Op. cit., p.161.
- 77) 정혜경 (2002). 1980년대 이후 생활한복의 전개 양상. 교육이론과 실천 12(2), p.252.
- 78) Ibid., pp.254-262.
- 79) 최은영, 이은영 (2002). 90년대 후반 생활한복의 혁신특성과 채택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6(7), p.163.
- 80) 김용서, 안명숙, 김은정 (1999). 현대인의 생활한복 선호도 조사. 한복문화연구 2, p.125.
- 81) 임영미, 이은경 (2001).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을 활용한 생활한복의 구매촉진 방안. 복식

51(5), p.37.

- 82) 이영희, 이송자, 이수정 (2004). 성인여성의 생활한복 디자인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6(1), p.44; 최은영, 이은영 (2002). 90년대 후반 생활한복의 혁신특성과 채택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6(7), p.165.
- 83) 양정은, 유송옥 (2000). 생활한복의 디자인 현황과 고급화 방안 연구. *복식* 50(3), p.155.

기타논문

- 1) 박찬부 (1991). 한국 현대 복식 문화 특성의 변천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2) 금기숙 (1992). 한국 전통복식의 현대적 활용. *복식* 19.
- 3) 남윤숙 (1991). 한국여성양장의 효시에 관한 연구. *복식* 16.
- 4) 김찬주, 홍나영, 유혜경, 이주현 (2001). 20세기 초와 20세기 말의 전통한복 착용 비교. *대학가정학회지* 39(4).
- 5) 황선진 (1992). 여성잡지에 나타난 한복의 사회적 의미변화에 관한 연구. *복식* 18.
- 6) 박영선 (2005). 생활한복 이미지를 활용한 캐주얼웨어 디자인 개발. *복식* 55(1), pp.25-42.
- 7) 고정민, 채금석 (1999). 생활한복에 대한 의식구조와 선호도에 따른 디자인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3(5), pp.654-666.
- 8) 심준영, 김용준 (2003). 생활한복의 착용 상황에 따른 이미지와 구매의도. *복식* 53(3), pp.155-163.
- 9) 소현정, 심화진 (2000). 인터넷 판매를 통한 생활한복의 활성화 연구. *복식* 50(4), pp.181-195.
- 10) 정인희, 조효숙, 김선경 (2000). 생활한복의 이미지와 가격 평가에 관한 연구. *복식* 50(6), pp.33-46.
- 11) 임영자, 류은정 (2001). 생활한복의 구매의사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6), pp.123-133.